

■ 르포 / 관광사범 합동단속반 동행 취재

제주관광질서 혼탁 행위 만연

불법 유상운송 행위 올해 4개월 사이 9건 적발 A씨 "1인당 4만원 받고 관광객 태우고 다녔다"

"선생님은 이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서로 출석해 다시 한번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이게 봐줄 내용이 아니잖아요."



합동단속반이 15일 관광지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1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모 테마파크 주차장. 관광사범 합동 단속반에 적발된 50대 남성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엇질러진 뒤였다.

제주시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 동부 지역 대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첫 번째 관광사범이 적발됐다. A(55)씨는 승합차에 중국인 관광객 4명을 태우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관광지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하루에 15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인당 여행 경비로 따지면 4만원이 채 안되는 전형적인 저가 관광이다. A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알려진 위챗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영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자치경찰에 제시한 회원증

에 나온 업체는 조회 결과 일반여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회원으로 있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데 등록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A씨가 임의로 회원증을 만든 것인지 등은 앞으로 사건을 넘겨 받을 경찰이 조사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그 대가를 받는 이른바 '불법 유상운송'은 제주 관광 시장에서 최근 들어 가장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불법이기 때문에 운행 도중 사고가 나도 관광객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도내에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5건에서 2017년 14건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4개월 사이 9건이 단속됐다.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 단속팀은 이 테마파크에서만 A씨를 포함해 여행사 법인 차량으로 불법 유상 운송을 한 또 다른 관광사범 등 모두 2명을 적발했다. 모두 1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다.

도내 관광업계는 불법 유상 운송을 포함한 불법 관광의 통로로 SNS 등을 지목하고 있다.

합동 단속에 함께 참여한 사단법인 제주도 중국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 등이 관광 안내를 하는 일도 비밀비제하다"며 "이들은 주로 위챗, 황바우처 등 SNS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손님을 끌어 모아 말도 안되는 가격에 관광 안내 영업을 하며 제주관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관광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면세점과 무료 관광지 등으로 관광객을 안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는 제주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하락시켜 재방문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스승의 날인 15일 신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아침조식시간 손으로 만든 카드를 교장선생님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사랑한다, 애들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제 스승의 날 각급학교 체험학습·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

일각에서 '스승의 날' 폐지론이 제기되는 등 언제부터가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날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은 15일 도내 곳곳에서는 스승의 날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신산중학교는 이날 사제동행 체험학습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우도로 자연체험학습에 나선 교사와 학생들은 우도 둘레길을 걸으며 사제간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는 "스승의 날의 참의미를 더욱 빛나게 해 준 행사였다"며 "학생과 교원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감을 높이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라중학교는 사제동행 스포츠클럽 발표대회 및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스포츠클럽 발표대회 후에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카드를 적어보고 영화관람을 하는 등 사제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제주제일고등학교도 사제가 함께 하는 '일백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사와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학교마다 마련됐다.

학생이 주도하는 스승의 날 기념 행사도 마련됐다. 하도초등학교는 이날 전교어린이회 주관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롤링페이퍼, 스승의날 관련 퀴즈 대회, '선생님' 3행시 작품 공모 시상과 축하 공연 등을 펼쳤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기념행사는 선생님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사랑한다, 애들아,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제주교육지원청도 스승의 날을 자축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멸종위기 희귀식물 '비자란' 복원

국립수목원-한라산연구부 자생지 복원 프로젝트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 환경 변화 등으로 사라질 뻔한 희귀식물 비자란이 자생지 복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15일 국가 희귀식물 비자란 복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란은 난초과(Orchidaceae)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오래된 나무에 붙어 자라며 제주도 지역에 매우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변화, 지속적인 산림이용에 따른 서식지 환경 변화 등으로 야생에서 개체수가 급감해 산림청 멸종위기식

물로 지정돼 있다. >> 사진

국립수목원은 이에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비자란 자생지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식 개체들의 야생 도입 후 5년 생존율이 70% 이상임을 확인하는 등 성공적 복원으로 이어졌다. 특히, 생존 개체 개화율이 68% 이상으로 확인돼 자생력을 확보한 개체군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희귀식물에 대해 다양한 지역으로 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유미 국립수목원 원장은 "우리



나라에서 사라질 뻔한 희귀식물 비자란이 다시 복원된 것은 국가생물주권 확보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조례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편 갈등 발생 시에는 조기 발견하고 자율적 해결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제8조의2 또래상담 등 프로그램 활성화' 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을 조기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래상담 및 또래

중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등 학생의 기본 소양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 정서와 문화에 알맞은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언함으로써 조례의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4·3희생자 유해 284구 대상 6촌까지 채혈해 유전자 확인

지금까지 미확인된 4·3희생자 유해 284구를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가족 추가 채혈이 재개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모두 405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신원확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284구에 대한 신원확인 이 재개되며, 신원 확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4촌에서 희생자의 직계 및 방계 6촌까지로 확대했다. 표성준기자

올바른 지식, 깨끗한 미래

태양광 & 풍력발전 바로알기

태양광·풍력 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태양광 발전 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9. 5. 24(금) 13:00 ~ 17:00
- 장소** 메종 글래드 호텔 1F 컨벤션 B홀
- 인원** 100명 (선착순 마감)

* 사전신청 없이 현장방문하시는 분들은 교육책자 배부 불가

- 교육비** 무료
- 주요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사례, 농가태양광 지원 정부정책 등
-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에 유선으로 신청 (☎ 064-748-4695)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태양광 바로알기

Q1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 태양광 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 일반지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Q2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기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요? | 태양광 발전소 전자기파는 생활가전의 전자기파 보다 약합니다.

풍력 바로알기

Q3 풍력 발전소 소음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며 발전기 일반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합니다.

Q4 해상에 설치하면 해상 생태계에 문제가 없나요? | 생태계 피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어족자원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